

## “탈북자들 위해 마음을 합하자”

절망NO, 장애NO, 오직 희망만을!

14~15일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대회 베델한인교회서 진행

꺾구리며 죽어가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1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열린다.

탈북자 북송반대 추진을 위한 해외 300인 목사단(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손인식 목사, 김인식 목사)이 주최하는 기도대회는 탈북자 강제북송반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모든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탈북자들과 북한동족들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회가 될 것이다. 함께 울며 기도하자”고 밝혔다.

손인식 목사는 “북한사역을 하는 각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라며 “탈북자들은 북한에 가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평생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모두 힘을 합쳐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르짖자”고 했다.

대회는 14일 오후 2시에 개회돼 토론과 기도, 주강사들의 강사가 있으며, 오후 7시에 탈북자 인권에 앞장서는 한국연예인 차인표, 신애라 부부의 간증, 강연, 선포, 도전의 시간이 진행된다. 15일에는 목회자들 간의 대토론, 현장보고, NGO들의 증언취청, 북한문제 미래전

망의 포럼 등이 진행되며, 오후 7시에는 Jayesslee 콘서트 및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지사,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수잔 솔티 여사의 강연이 있다. Jayesslee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6천만 건 이상을 올리며 SNS 영상부문에서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한국계 호주 시민 활동가이며, 북한인권을 위한 공연을 펼친다.

이밖에 주강사는 이동복(전 국회의원), 신동혁(탈북자), 김현욱(평통수석 부의장), 조진혜(탈북민북한민주화 민주대표), 주성하(김일성대 출신 현 동아일보 기자) 씨, 김이진 목사(탈북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이원상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손인식 목사,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김지우 목사(통일시대사람들 대표), 임창호 목사(고신대 교수) 등이다.

지난 2일 오전에 통곡기도대회를 위한 LA지역 목회자 초청 조찬모임이 LA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희민 목사는 “북한에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기도대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LA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웹페이지: www.cfnk.org  
 문의: 949-854-4010/4020

토마스 맹 기자



닉 부이치치가 기자회견에서 밀알의 밤 행사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2012 밀알의 밤, ‘닉 부이치치’ 희망 전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믿음으로 우뚝 일어나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Life without Limbs 대표)가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에서 주최하는 ‘2012 밀알의 밤’에 메인 스피커로 나선다. 행사는 8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ANC온누리교회, 8월 25일 오후 7시에 남가주사랑의교회, 26일 오후 7시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다.

1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이치치는 “올해도 밀알 장에

인 장학금과 모금 행사에 초청받아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서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은 학교에서 왕따를 추방하는 것”이라며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나 학교에 다니는 동안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의 아픔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자살하는 10대들을 구하기 위해 유타 및 텍사스 주지사사 이 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로 합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사역에 대한 중압감과 자학의 감정에 빠져 며칠 동안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며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공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올해 초 결혼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 가정,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닉 부이치치는 2번째 저서 ‘Unstoppable’의 10월 출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용은 실천하는 신앙의 능력을 다루고 있다. 한국어 번역은 내년 5월에 나온다. 이번 밀알의 밤 티켓은 10불이다.  
 문의: 714-522-4599 토마스 맹 기자

### 장미란, ‘기도 세리머니’ 가 아니라 진짜 ‘기도’ 드리다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장미란 선수  
 5일 런던올림픽 여자 75kg 이상

‘기도 세리머니’가 아니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가 가지 가깝게 떨어 드린 진정한 ‘기도’였다.

급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장미란 선수(사진)는 인상 125kg, 용상 164kg를 들어올려 합계 289kg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장 선수는 용상 3차시 170kg에 실패한 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입술에 대었던 손으로 바벨을 이루 만지며 아쉬움을 달랬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국민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장 선수의 경기 장면은 5일 최고 시청률을 기

록했다. 사격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따낸 진중호 선수의 경기 장면보다 시청률이 더 높았다. 장 선수는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수영의 박태환을 제치고 시청률 61.7%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 후 장미란 선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주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장 선수는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 나와서 저를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분들에 실망시켜 드렸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마지막까지 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다치지 않고 끝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습

때만큼은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역도는 참 정직한 운동”이라고도 했다.

장 선수는 “많이 부족해도 베이징을 리믹 때부터 국민들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고, 이는 힘들 때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였다”며 “응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한국 역도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미란 선수는 지난 2008년 베이징을 리믹에서 합계 326kg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딴 이후 2009년 고양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지만, 다음해 1월 고양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가 뒤를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고질

적인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와 허리, 골반에 이상이 오면서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9월 열린 터키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을 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같은 해 열린 광주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기록은 후퇴했다.

결국 장 선수는 통증 탓에 2011년 프랑스 파리세계선수권 출전을 포기한 채 런던올림픽을 목표로 재활훈련을 소화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무너진 밸런스를 맞추는 일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선수권을 제패하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낸 한국 여자 역도의 ‘전설’이다.

▶ 다음 면에 계속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5, DAEWOO, SMOG CHECK

**TAX 문제 전문**  
 자산통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미주 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입학생/편입생모집**

미주 총신대학교는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순수 교역자 양상을 목표로 개혁주의 신학대학교로서 재의 헌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의 인준신학교입니다. 초대 조혜수 총장의 뒤를 이어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총신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감리대학교에서 교수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김근수 박사께서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오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 끌어 갈 사명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총장 김근수 박사, 이사장 김연도 박사

총장 김근수 박사,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 #300, L.A., CA 90010  
 TEL: 213.487.1010 FAX: 213.487.3303  
 E-MAIL: 070-7019-1011 www.chongshinusa.edu  
 E-mail: info@chongshinusa.edu

은회신 목사님들의 소중한 장서를 기증 받습니다. 학교에 기증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본교는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입니다. 입학과 편입생을 위한 각종장학혜택 (총장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총회장장학금, 한울장학금, 영화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Internet이나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서교부 및 접수 중에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인 면접 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213-487-1010)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School of Theology School of Missio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School of Church Music



하나로커뮤니티교회에서 양성필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길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하나로커뮤니티교회에서 지난 5일 오후 4시 양성필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성황리에 드러졌다. 예배는 1부 예배, 2부 취임식으로 진행됐고, 양목사가 부목사로 시무했던 베델한인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동부교협 임원들과 CRC관계자들이 참여해 그의 취임을 축복했다.

대해 한 장로님께서 '돈 욕심 없는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늘 힘을 준다'며 "설사 목사님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허물을 덮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오세호 목사(CRC한인교협 경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초해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손목사는 "여러분의 입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과 하나되어 본문과 같이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건상 목사(SIM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성도로, 목회자로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여러분과 목회자가 하나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했다.

Phil Dubois(CRC 남가주교회지원팀 서기) 목사는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옳은 데로 인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며 축사했다.

대표기도는 김광집 장로가 했으며 예배는 이철 목사(가나안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취임패 증정은 나형선 장로가 맡았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처음목사로 부임하고 설교를 전할 때 헌금순서를 잊고 축도를 했는데 그 실수에

연던 제가 교회를 담임한 지난 10개월

은 축복의 길이였다"고 간증하며, "양 목사님께도 분명히 뜻대가 생겼으니 축하 드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결과가 나왔으니 축복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베델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영상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양성필 목사가 직접 작사한 '하늘에 닿은 십자가'라는 곡을 CCM 가수인 최수진 자매가 열창해 은혜를 더했다.

대표기도는 김광집 장로가 했으며 예배는 이철 목사(가나안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취임패 증정은 나형선 장로가 맡았다.

한편, 이 교회는 자녀들의 새학기를 맞아 2세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백투스쿨 특별기도회'를 6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한다.

빅터 박 기자

# 김요셉 목사 '헛갈리는 정체성' 을 말하다

## 3일 뉴라이프선교회회 부흥집회서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의 장남, 김요셉 목사가 3일 열린 '터닝포인트' 집회에서 이민 가정과 이민교회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장환 목사의 장남, 김요셉 목사가 지난 3일 플러튼 뉴라이프선교회회(박영배 담임목사)에서 부흥집회 '터닝포인트'의 강사로 나섰다. 김목사는 트리니티대학원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최연소자 자격으로 획득한 1.5세 목회자다. 현재 수원 중앙기독교초등학교의 교목이자, 원천침례교회 대표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제 교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동산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김목사는 특유의 구수한 말투로 이민가정과 이민교회가 겪을 수 밖에 없는 혼란과 갈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헛갈리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요셉 목사는 1961년 김장환 목사와 트루디 사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훗날이어서 정체성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대학 졸업 무렵 한인 2세 청소년 집회 강사로 초청되면서 한국인 선교사 자녀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셨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국에서 경험한 크리스천스쿨의 영향으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했다. 이후 가정과 교회, 학교가 힘을 합쳐 그리스도 군사를 길러내는 크리스천 스쿨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으며, 1994년 중앙기독교초등학교를 설립해 현

이민자의 상황을 예배소서의 말씀에 비춰 풀어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란다"며 교인들을 독려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팀 사역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뉴라이프선교회회는 현재 부에나팍, 라호야, 세리토스, 콜로라도 등 8개 자매교회를 개척해 선교하고 있다. 교회는 지난해 말 플러튼에 새 성전을 건축해 임당했으며, 오는 9월 5주 과정의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문의: 714-526-6562 정한나 기자

# 극동방송 '방송 송출', 감사콘서트 개최



극동방송 미주지사 방송 송출 감사콘서트에 랜디 김 밴드가 출연해 축하했다.

FEBC 극동방송 미주지사 방송 송출 감사콘서트가 5일 충현선교회(민중기 목사)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준원 극동방송 미주지사는 "오직 복음'을 방송에 담아 송출해온 극동방송이 이 사명의 지경을 넓혀 LA지역까지 방송 송출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일을 시작하

이날 민중기 목사가 개회기도로 시작한 가운데, Randy Kim Big Band, 지명현 목사(소리엘), 정종원 목사(꿈이있는자유), 충현선교회브리얼코랄, 이은수 목사, 손영진, 박종호 성가사가 16곡의 노래

를 선사했다. 행사는 박광철 목사(쥬이 헬로쉽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극동방송 미주지사는 LA 우리방송과 업무 조인식을 맺어,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5시~7시, 오후 10시~12시) LA 우리방송(AM 1230) 전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LA우리방송은 LA에 본사를 뒀으며, 하루 24시간 한국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공중파 AM방송이다. 방송 내용은 뉴스와 연예, 오락, 교양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극동방송은 한국 복음화를 위해 2개의 AM과 11개의 FM 방송망이 네트워크를 이뤄 한국 전역 어느 곳에서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250KW와 서울의 100KW의 송신망을 통해 지난 50여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영어권을 향해 매일 24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극동방송 LA지사는 La Mirada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562-947-4651

토마스 맹 기자

# 최악의 단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 1면으로부터 장미란 선수는 그간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를 대표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장 선수는 태릉선수촌 기독교 선수 모임인 '살롱화' 총무로 섬겨 왔으며, 예배에 매번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선수는 지난해 호주에서 있었던 간증집회에서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어깨를 숙이고 살았지만, 역도를 하면서 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됐다"며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감사예배에서 그녀는 "저는 무겁게 들어올렸는데, 다들 장난처럼 들어 올렸다고 하시더라. 역시 제 힘으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생애가 들었다"고 했다.

그녀의 '기도'를 계속 볼 수 있을까. 장 선수는 은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자고 싶을 때까지 자 보고, 편하게 쉬어보고 싶다. 불규칙한 생활이 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장 선수는 또 "아무리 좋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며 "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장

이대웅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대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9.99**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휴대전화에서 국제전화!

행사기간 : 2012년 8월 15일 까지

응원 이벤트!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15개면 \$15크레딧!

마이코리아너버\*\*\* 무료 부가서비스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한국 070 번호 제공

365일 한국어 상담

500분 무료

환불 보장 [30일]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센터시간 :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미아트네 매장을 보유하고 개인용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빠른 속도보다 바른 방향 추구하는 나침반교회 민경업 목사

속도에 미친 세상이다. 빠른 것이 좋은 세상이 됐다. 운전도 빨리해야 하고,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인간관계도 빨리빨리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만 그런 건 아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시켜야 하고 예배도 빨리 끝내야 하고 뭐든지 빨리해야 좋아하는 세상이다. 늦어진다 것은 실패와 동의어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빠른 거 좋죠. 속도도 좋죠. 그런데 만약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빨리할수록 실패하는 것이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침반교회의 민경업 담임목사는 교회 이름처럼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한다. 속도는 좀 느려도 방향만 옳다면 어쨌거나 목표에 도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할수록, 잘할수록, 노력할수록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목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방향 감각은 성경이란 절대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미국장로회(PCA)에 속한 나침반교회는 민경업 목사가 부임한지 13년이 됐다. 그동안 부에나파에 있다 최근 1천여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대형 예배당을 가진 성전으로 이전했다. 교회를 이전하자마자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뤘다. 그는 교계의 나침반, 지역사회를 위한 나침반이 되기 위해선, 교회가 열린 태도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Th.M. 학위를 받았다.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9년, 남가주사

랑의교회에서 3년, 연변과기대에서 채플린으로 2년간 사역한 경험을 갖고 있다.

-나침반교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민사회에서 정신적 지주이며 동시에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나침반교회는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가 표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자체가 흠여지기 위함이라는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새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지역사회에서 감당하실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부에나파에 있을 때에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를 위해 시 당국과도 협력했고 지역사회 각종 일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지금 새성전을 지어 이사한 브레아에서도 이런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당 예배에도 시장, 시의원,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한인교회이지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는 입당하자마자 이 지역에 젊은 부부가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가정문화 창조를 위한 가정부흥회를 개최했고 박인수 교수 초청

무료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카페를 열어서 주중에도 교회를 개방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당은 공연장으로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지요. 사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규모있는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침반교회가 지역사회에 교회를 많이 개방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당은 지상에서 가장 효용성이 낮은 건물입니다. 주말에 한 번만 쓰니까요. 그러나 가능한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각종 모임은 물론이고 문화사역에도 사용하면 좋고, 선거장소나 타운홀 미팅에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어찌되었거나 미국에 빛은 진 나라입니다.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감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교회만 챙겨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이 지역은 나이가 좀 있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좋은 학교 덕에 한인들의 거주자 수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가 조금 적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한 데에는 자녀 교육, 2세 사역을 위한 공간 확보에 큰 목적이 있었던 만큼 차세대 교



민경업 목사

지역 사회 섬기는 교회 역할 중시

교회가 이민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 해야

올바른 섬김 통해 교회는 사회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목회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92821  
전화번호) 714-826-6245  
웹사이트) www.nachimban.org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L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 메시아닉 주들의 지도자, 요셉 술람 장로 강연

## 갈라디아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풀어내...UBM교회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메시아닉 주들을 이끄는 요셉 술람 장로가 UBM 교회에서 강연했다.

“그 수가 적다. 너무 적어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메시아닉 주(Jew)’에 대한 현지 성서대학 교수의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는 1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0.002%에 불과하지만 15년 전 수십 개에 불과했던 교회도 현재 200여 개로 증가하는 등 그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자들은 기독교 역사 2천 년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라고도 표현한다.

메시아닉 주들은 주로 네게브 사막 근처에 모여 살고 있다.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는 1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지에선 지금도 이들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과격 정통파 유대인들의 협박과 테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격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이단아’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니... 이들에 대한 반감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들 메시아닉 주들을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요셉 술람(Joseph Schulam) 장로가 지난 4일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 강단에 섰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으

로 인해 한쪽 눈이 멀었다. 화염병과 돌 던져리들이 날아오고 벽보에 위험인물로 지목돼 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온갖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구제사역을 통해 이제는 현지인들로 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이날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떤 신학이론에 따르면 유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글을 꼼꼼히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피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전하는 자의 신학이나 신앙보다 복음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 서두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검증할 줄 알아야 한다”며 “검증할 수 없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것임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 밝힌 바 있는 그는, 이렇게 미 전역에 퍼진 한인교회들을 방문해 네트워크하면서 강연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지난 2월엔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에서 강연을 펼쳤고, 오는 9월 중순에는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한 차례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1946년 3월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출생한 요셉 술람 장로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며 정통 유대교육(Yeshiva)을 받던 중 스승인 랍비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됐다. 하버드대학교의 전임 교수 초청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복음화에 헌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네티비아(Netivyah)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미국 데이빗 립스콤(David Lipscomb) 대학에서 학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 랍비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복음을 위한 로잔 위원회 위원, 이스라엘 유대인 복음주의 로잔 의장 역임 등의 사역을 감당했다. 1989년에는 세계 복음주의 로잔 위원회 마닐라 특과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방송 사역을 비롯해 무료급식 구제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현지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정한나 기자

## 남가주여성목사회 7월 월례회, 가을부흥성회 논의



남가주여성목사회가 7월 월례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회장 백지영 목사.

남가주여성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7월 월례회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할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백지영 목사가 설교했다. 백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열려야 한다”며 “또한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하고, 사명감에 투철하고, 선한 일에 앞장을 서서,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은 오는 10월 교계가 연합해 가을부흥성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남가주여성목사회 가입문의: 213-381-7755, 323-708-9191

토마스 맹 기자

## 글로벌선교교회 한여름밤의 은혜 집회 개최



글로벌선교교회에서는 8월 한달간 네 차례에 걸쳐 한여름밤의 은혜 집회를 연다.

글로벌선교교회에서는 8월 한달동안 네 차례에 걸쳐 한여름밤의 은혜 집회를 “오직 은혜 앞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의 박신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김용훈 목사(웨스턴 열린문장로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진수 목사(산호세 뉴비전교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는 성현경 목사(뉴저지 가스펠렐로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박신일 목사가 인도한 첫 번째 집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박 목사님의 말씀

통해,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또 다른 성도는 “이번 집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성도도 있었다.

문의: 909-396-4441

주소: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한주연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푼!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원장 이 엘리사 목사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 성령의 강력한 병고침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욱조 목사 찬양 간증집회** 8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주소1331 S.Vermont Ave, L.A, CA 90006 24시간 전화 213-382-3258/ 213-725-3007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효호복지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술종합보험, 크리스찬헬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향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취급하시는분 하숙하시는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오징어젓	우렁된장	간장고추
어리굴젓	냉이된장	된장고추
가리비젓	양념게장	명란젓
황새기젓	양념깻잎	창란젓
더덕무침	간장깻잎	낙지젓
파래무침	된장깻잎	조개젓
무말랭이	고추잎무침	갈치젓
고추전어	장어구이포	
연근조림	마늘쫄무침	

**서광식품**  
(213)268-7004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 목회자 동정

**금병달 박사(가정을세우는사람들)**



금병달 박사-금정진 사모는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나하임 소재 커넬대학교에서 자녀양육세미나를 개최한다. “부모, 자녀의 필요, 자녀의 정체성, 자녀와 좋은 관계 만들기, 자녀후계와 보상” 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문의: 714-287-2458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목사는 지난 5-7일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 선교를 계획하고 23명의 성도를 파송했다. 교회는 오는 12일 주일 타나베 유키오 목사(남가주일본인교회협의회 회장)를 강사로 초청해 특별집회를 개최하며, 심 목사가 직접 동시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 일본에 보낼 단기선교팀을 선발해 현재 훈련 중에 있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8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순복음교회(담임 이호영 목사) 창립 14주년 기념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다. 이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이 교회 집사와 명예교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진유철 목사의 이번 일정에는 나성순복음교회 박영집 장로, 권오승 장로도 동행했다.

### 교회 단신

**뉴스피터 무브먼트 목회자 대상 컨퍼런스 개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나아가 거룩한 세상을 꿈꾸며 거룩한 회복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뉴스피터 무브먼트'(상임대표 박용덕 목사)가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부터 21일까지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 부부로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숙식 포함). 장소는 플러튼 소재 하워드 존슨호텔 앤 컨퍼런스 센터(222 W Houston Ave, Fullerton)이며, 참가신청은 사무하고 있는 교회 주보 1장과 100불 수표를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로 보내면 된다. 수표는 컨퍼런스가 끝나면 본인에게 돌려준다.  
문의: 714-401-9874/ ydp2024@yahoo.co.kr(박용덕 목사)  
909-276-0011/ williamwooramlee@yahoo.co.kr(이윤수 목사)

**월드타운기도원(이엘리사 목사)에서 오는 11일 저녁 7시 장육조 목사 찬양 간증집회가 있다. 장 목사는 '고목나무', '왜 몰랐을까' 등의 곡으로 앨범을 발표했고, '기다리게 해 놓고(방주연)', '어떻게 말할까(장미화)', '짧음의 노트(유미리)', '꼬마인형(최진희)', '상처(조용필)', '천년바위(박정식)' 등의 노래를 작곡했다. 이후 총회개혁신학연구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수 전하세', '생명나무', '행복을 찾은 사람', '심은대로 거두리라' 등의 복음성가 앨범을 발표하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기독교 TV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213-382-3258**

**상으로 셀교회론 세미나 개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UC산타바바라에서 '큰 은혜, 큰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준민 목사가 강사로 나서 20대부터 40대 전교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저녁 7시 김종필 목사(필리핀 선교사)를 초청해 열방을 깨우는 24시간 중보기도 특별집회를 가졌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제8기 비전TD집회를 Verdugo Pines Bible Camp(마운틴하이 소재)에서 갖는다.  
문의: 213-255-0097

**토렌스조은교회 골프토너먼트대회**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는 7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다윗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김바울 담임목사가 직접 성경을 가르친다. 소록도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전교인 골프 토너먼트대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Chester Washington Golf Course(1930 W. 120th St, Los Angeles, CA 90047)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310-400-9928

**동부장로교회 무료 한국학교**

동부장로교회(이용규 목사)는 18일부터 커뮤니티를 섬기려는 목적으로 토요 한국학교를 무료로 운영한다. 만 4세~8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및 문화를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동부교회 한국학교'를 개교해 교사들이 오는 8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에 수업을 실시한다.  
문의: 213-383-3261, epcksla@gmail.com

**충현선교교회 27주년 기념 부흥성회**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가 설립 27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다. 성회는 9일 오후 7시 30분, 10일 오전 5시 20분, 오후 7시 30분, 11일 오전 5시 20분, 오후 7시, 12일 1,2,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된다. 헤브론 경건훈련이 11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열리며, 선교사 파송식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있다. 교회 설립 기념찬양축제는 12일에 열린다. 오후 3시에 찬양제, 5시에 만찬이 이어진다.

**동양선교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동양선교교회(박정은 목사)는 지난달 29일 창립 42주년 기념예배를 맞아 임동선 원로 목사가 '십자가의 깊은 뜻을 바로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총동원 새벽기도회를 개최해 매일 300명의 기도용사가 채워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광복 67주년 기념콘서트**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오는 11일 오후 7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에서 주관하는 광복 67주년 기념 콘서트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을 개최한다.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가수 황보가 출연한다.

**LA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 '회복' 어린이 돕기 사랑의자선모금 콘서트**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를 초청, '회복'(요엘 2:25)을 주제로 2012 여름성령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9-10일 오후 7시 30분, 11일 오전 6시 20분, 오후 7시, 12일 1,2,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된다. 또 교회가 설립한 LASR공립대안고등학교 가을학기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문의: 213-975-1111

**장육조 목사 찬양 간증 집회**

장육조 목사 찬양 간증 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 교역자 수련회, 수요성경대학, 늘푸른대학 접수**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오 목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주일학교 교역자 수련회를 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최준우 목사가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수요성경대학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선교미용교실을 연다. 오는 26일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있다. 늘푸른대학(실버대학) 가을학기 접수를 받고 있다. 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학기는 9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시간은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개설과목은 컴퓨터(기초/중급), 미술, 뜨개질, 합창, 중창, 기초영어회화, 서예, 피아노, 찬양무용이다.  
문의: 213-265-2653, 714-392-0228

**새생명비전교회 비전TD집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목회자들을 대

정리=빅터 박 기자

## 한선희 목사 브라질 순회 이단대책 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지역을 순회하며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리아장로교회(이승재 목사), 한인장로교회(한봉헌 목사), 선교교회(조현진 목사), 히오동양선교교회(김기종 목사) 등에서 세미나가 잡혀 있다. 특히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기독교연합회(한봉헌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평신도 집회가 열린다.

한선희 목사는 "마지막 때가 다 됨을 이단들도 알고 있기에 더욱 극성이다.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주연 기자

## 사랑의 자선 모금 콘서트

'2012 Inspire', 북한,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돕기 위한 음악회

한국의 유명 대중가수 설운도 씨와 소프라노 Sarah Chung, 재즈보컬리스트 Sophia Bouhaddou, 바이올리니스트 Fay Kim, 피아니스트 문지현 씨가 북한과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을 위해 자선모금 음악회를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LA사랑의교회(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Inspire 2012'다. 이 음악회를 위해서 KBS 여유만만 프로팀이 전격 나선다. 사회는 이영돈 씨가 맡으며 김진수 밴드, LA POPS Chorale, MUSA Children's Choir 등이 참여한다. 티켓은 20불이며 MUSA Academy (3875 Wilshire Blvd, Suite 707, 7th Floor, LA, CA 90010, 213-738-7140)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북한,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문의: 310-948-3110(Elaine Kim) solongosproduction@gmail.com  
한주연 기자



소프라노 Sarah Chung



혈액 해독 / 기력회복

뼈, 골수 영양공급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근육강화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더 많은 효능 사례는 [www.sellacare.net](http://www.sellacare.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p><b>발작 · 자폐증 · 무감각증</b>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과 발작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폐인상태, 셀라케어 복용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한국) 010-5599-2633</p>	<p><b>관절염 · 변비 · 생리통</b>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CA)</p>	<p><b>중풍 · 마비 · 당뇨 · 고혈압</b> 15년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7개월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회복됨. 민현자(65세, 한국)</p>	<p><b>♣ 위암 3기</b>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 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LA) 213-268-8381</p>
<p><b>자폐증</b>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 끝이 나무 같이 딱딱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필(16세), 010-5409-8826</p>	<p><b>♣ 폐암말기</b>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p>	<p><b>♣ 혈액 투석</b>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해 왔는데, 2달복용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010-6612-0191</p>	<p><b>부정맥 · 해소 · 천식</b>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LA) 213-500-4471</p>
<p><b>♣ 유방암 완치후 모유수유</b>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달동안의 많은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후 심한 호전반응을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LA) 213-215-6991</p>	<p><b>간질 · 약물중독</b> 16년동안 하루에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수있을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없어짐. 복용전 190 lb가 125 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 213-604-1992</p>	<p><b>위염 · 변비</b> 복용 하루 지나면서 위가 편해져 음식을 먹게 됨. 일주일에 한번 보던 변을 지금은 매일 갈수있게 되어 행복해 함. 이주영(63세, LA)</p>	<p><b>불임 · 생리통</b> 심한 생리통을 겪으며 결혼한지 3년동안 아기가 없어 병원에다니며 아기를 갖으려 애쓰던중 셀라케어 M3 셋트를 3개월 복용후에 임신이 되어 온가족이 기뻐하고 있음. 김미정(26세, FL)</p>
<p><b>아토피 · 건선</b>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LA) 213-215-6991</p>	<p><b>파킨슨 병</b> 3일 복용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사역자로 다시 일할수 있을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됨. 브라이언 김(70세, VA)</p>	<p><b>녹내장</b> M3 셋트 복용중 양쪽 눈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온후 두달 후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었음. 김신호, (67세, LA) 323-347-9415</p>	<p><b>♣ 직장암 · 대장암 말기</b>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있던 큰혹들이 줄어들며 복용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LA) 323-533-0624</p>
<p><b>반신불수 · 심한욕창</b>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 했으나, 복용 3일 후부터 아들도 알아보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복용6개월후부터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걸어다니고 있음. 박경숙(82세, CA)</p>	<p><b>♣ 전립선 암 · 부정맥</b> 소변 힘들고 밤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복용두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않게 되고 혈액검사때마다 혈관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흐름이 원활 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CA)</p>	<p><b>♣ 대장암</b>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치료를 받던중 M3셋트를 먹기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석달후 완치되었음. 한국, 010-7928-7986</p>	<p><b>비만 · 우울증 · 야뇨증</b>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 lb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시작하면서 현재는 130 lb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 샘 양(15세, LA) 213-219-7746</p>
<p><b>자가 면역 질환</b>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3일후 피검사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곽, ( NJ )</p>	<p><b>당뇨 · 고혈압</b>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중 M3셋트 복용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깨끗하게 완치됨. 오일동(52세, CA) 213-258-5321</p>	<p><b>우울증 · 불면증</b> 우울증이 너무심해 병원에 입원. 불면증으로 수면제 장기복용. M3셋트 복용한달후 우울증이 좋아지고 잠도 잘자게 되었음. 손정희(29세, LA)</p>	<p><b>심한알러지 · 하지정맥</b>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중 M3셋트 복용3일후 완치. 심한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CA) 310-843-0033</p>

베벌리 힐스 지점 310-800-8242 LA 본사 213-215-6991 621 S. Virgil Ave #470 Los Angeles CA 9000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서울대 출신 엘리트가 에이즈 환자와 ‘동거’ 하는 사정

###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에서 에이즈로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노룩수 선교사

그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간지  
어언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덧 그곳 원주민들과 친구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토실토실 살핀 말을 타고 미지의 숲 속으로 들어간다. 광활한 고원의 서늘한 산중 공기가 살갗을 파고든다. 굽이 굽이 굽은 등을 달은 산봉우리를 타고 그는 복음을 전한다.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에서.  
레소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다. 이곳 부족민들과 17년간 살과 살을 맞대며 복음을 전하는 외길 인생을 걸어온 노룩수

선교사를 만났다.  
“시카고한인선교사대회 참석차 미국에 왔다”는 그의 첫인상은 구수한 된장 냄새 풍기는 소박한 말투에 다립질도 제대로 안 된 셔츠를 입고 있는, 영락없는 ‘아저씨’다.  
그런데 이 아저씨, 생긴 건 평범한데 이력을 보아하니 범상치 않다. 일단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인 한 명 없이 개척을 한

다고 사서 고생을 하더니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자 후임에게 물려주고 홀연히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AIDS) 환자와 동거 아닌 동거를 하고 있다.  
여기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남부 아프리카엔 에이즈 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오죽하면 ‘세계 에이즈의 화약고’란 별칭이 붙었겠는가. 어렵잡아 3천만명이라 하니 전 세계 에이

즈 인구의 4분의 3이 이곳에 몰려 있는 셈.  
통상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마련이다. 환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종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하나, 노 선교사가 살고 있는 레소토 왕국을 포함한 남부 아프리카는 얘기가 좀 다르다.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일종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에이즈에 걸려버린 사람들도 혈액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한다.  
대낮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팍팍 쓰러지는 건 다반사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사인(死因)이 뭐냐 물으면, 폐병이나 위장병 등 다른 질병으로 죽었다고 돌려댄다. 하지만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에이즈가 원흉이라고 털어놓는다.  
넬슨 만델라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남도 에이즈에 걸려 죽었으니, 제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경받는 인물이라 해도 속수무책으로 변제가는 에이즈 앞에선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어지간한 전생도 이보다 처참할 순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당께. 어린 아그들 아버지, 어무이가 에이즈 걸려 죽어 버리니... 부모 잃고 오갈 데 없는 아그들 나라도 거뿔 걸려야제.”  
그의 집에는 현재 부모 잃은 고아 11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5명이 에이즈 환자다. 부모가 에이즈 환자일 경우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50대 50이다. 아직은 그저 그가 기거하는 집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데려와 키우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교회 개척’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복음으로 아프리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에이즈 문제가 근절된다는 논리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해도 에이즈 환자와 사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에이즈가 위험하진 않다. 에이즈 감염 부모로부터 출생을 통한 수직 감염, 수혈, 성관계 이 3가지 외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덤덤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치거나 해서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줄 일이 있을 땐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고 덧붙였다.  
레소토왕국 제1호 한인 선교사인 그는 15년 전 수도 마세루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지금은 외곽 지역으로 옮겨 확장해 가고 있다. 처음엔 교회가 작아 교인 수가 10명이 채 안 됐지만, 어느새 1천 명 규모로 자라났다. 이런 식으로 세운 교회가 벌써 교회 5곳이나 된다. 지금은 그가 세운 원주민 목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목회하고 있다.  
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 “에이즈로 부모 잃은 고아 100명을 키우다가는 것”이라고 나지막히 답한다. 그는 조만간 또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새처럼 날아갈 테다. 두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안고서.  
정하나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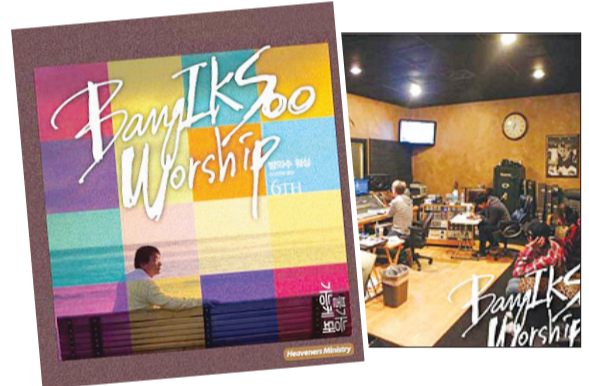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방익수 목사 6집 앨범 <불가능 가능케 돼> 출시



### ‘기독교 음반계의 명반’ 호평

2012년 여름, 10년 만에 새로운 음반과 함께 그가 돌아왔다. 그동안 한국 CCM계에 조용하지만 깊고 큰 흐름을 만들어 온 찬양 예배인도자 방익수 목사. 이 시대 진정한 워십 리더인 그가 6번째 음반 ‘불가능 가능케 돼(Nothing is impossible)’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대부분 살짝 빠른 비트에, 파워풀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시에 아날로그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 나오는 은혜로움이 가득하다.  
“(인간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믿음 따라 사는 삶”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최고의 역량을 쏟아낸 이번 앨범에는, 음악의 도시 내슈빌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세션으로 참여했다.  
데이빗 데이빗슨(David Davison)의 스트링이 앨범 전반에 걸쳐 나오며, 마이클 W. 스미스 등 쟁쟁한 CCM 아티스트들의 앨범에 기타 세션으로 참여했던 기타리스트 데이브 클리블랜드(Dave Cleveland)가 기타의 잔잔한 선율을 담았다. 앨범 마스터링은 그레 미상 수상에 빛나는 엔지니어 블라도 멜러가 맡아 앨범의 완성도를 기했다. 블라도 멜러는 마이클 부블레, 안드레아 보렐리, 셀린 디온, 비운세, 마이클 잭슨, 웨스트 라이프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다.  
찬양 사역자 1세대인 방 목사의 이번 앨범은 침체 일로에 빠진 찬양 음반계를 살리는 신호탄으로 젊은이들로부터 기성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차원’(Something new)의 음반을 내놓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타이틀곡 ‘불가능 가능케 돼’는 힐송 처치와 함께 호주 예배 사역을 대표하는 플래닛 웨이커즈의 곡을 번역해 불렀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높이며 찬양한다.  
이번 앨범의 곡들은 전부 삼위일체



방익수 목사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각각의 트랙의 제목이 말해주듯, “천국의 소리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으신 하나님을,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방익수 목사는 지난 18년간 5개 음반 ‘사랑의 나라로(1995)’, ‘내 영혼이 잠잠하라(1997)’, ‘내 안에 사는 이(1999)’, ‘거룩 거룩(2000)’, ‘존귀하신 주(2004)’를 발매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를 다니며 ‘부흥위임’을 통해 예배회복의 물결을 일으켜 온 그는 2003년 알바인 사랑의방주교회를 개척해 목회 활동을 이어왔다.  
다년간 성도들과 함께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자’라는 모토 아래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을 소망해 온 방 목사는, “생생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감당할 수 없도록 부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앨범에 담았다”며 앨범 출시의 감격과 기쁨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년 한 차례씩 앨범을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7집 음반 선곡이 끝났고, 편곡에 들어갈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의: 714-595-5279  
정하나 기자



# “진화론, 과학적 오류에도 정설처럼 된 이유는 무관심”

‘제11회 창조론 오픈포럼’ 성결대에서 열려, 창조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제11회 창조론 오픈포럼이 6일 오전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신학과 과학, 의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창조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날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는 오늘날 구속 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신학적 발전이 더딘 창조 및 자연신학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신학계와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허정윤 씨(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도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신학이 과학을 포용해야 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조 박사는 “창조 교리는 성경에서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창조 교리는 발전하지 않고 구속 교리만 발전해 온 것이 있다”며 “하지만 사실 창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창조를 떠나서는 구속을

논할 수 없다. 구약학자 슈미트가 말하듯 모든 신학은 특별히 창조를 말하지 않아도 창조 신학인 것”이라며 “그리고 이 피조된 세상(자연) 안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계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계시이며, 이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자연신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박사는 “구속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자연신학의 치명적 핸디캡이 역사적으로 늘 구속교리에 판정승을 준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똥만 아니라 칼 바르트로 대변되는 자연과 자연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자연계시와 자연신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 로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자연과 이성이 복음에 유익하고 유용하나 하는 문제에 집착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과학과 과학 기술 속에서 다변화됐다. 문명의 이기들이 일찌감치 교회와 복음의 도구가 되어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학제간 소통이 필요한 시대적 유행 때문이 아니라도 신학과 자연과학 안에는 분명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고 완성하셨다”며 “이제 자연과 자연계시, 그리고 자연신학을 복음적 시각에서 재정비해야 할 때다. 한국교회가 이 일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씨는 “현대에서 과학과 신학의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찰스 다윈에 의해 시작된 진화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던 당시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호응을 불러왔다”며 “다윈의 진화론은 열렬한 추종자들에게 점점 덧입혀지고 굳어져서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말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화론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사실 진화론이 이토록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대세를 확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진화론에 대한) 신학자의 외면 또는 무관심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진화론은 공산주의 유물론과 결합해 인간사회의 진보이론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바로 중대한 문제인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진화론의 마력에 빠지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하등생물은 물론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조차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변종’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필자가 신학이 과학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



조덕영 박사  
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신학의 입장에서 유물론 과학주의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논쟁하지 않으면 신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준비되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죽는다는 건 축복”

김진홍 목사, 하용조 목사 1주기 추모 설교

故 하용조 목사의 1주기 추모예배가 4일 오후 서울 서빙고동 은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예배 참석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하 목사의 생전 영상이 방영될 때마다 흐느끼며 하 목사를 추모했다.

하용조 목사를 이어 은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는 성경봉독에 앞서 “하 목사가 계시지 않았던 1년이 어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빈 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진다”라며 “하나님께서 은누리교회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던 1년을 보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 목사님께서 꾸셨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원로)는 ‘자는 자들과 남은 자들(살전 4:13-18)’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준비된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축복”이라며 “여차피 이 땅에 살다가 분항으로 가는 것이 살인데, 숨겨두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 같은 얼굴이 된다면 아무리 평생 밀바다에서 헤맸다 해도 성공한 인생 아니겠나”고 전했다.

김 목사는 “하 목사를 생전에 만날 때마다 감탄하고 놀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디어가 많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을 쏟아낼까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한 아이디어는 상상력과 창조성에서 나오므로, 그 상상력과 창조성은 영적인 내공

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말 보물 같은 분이구나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는 “얼마 전 하 목사의 일본선교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하 목사가 일본 선교를 위해 한 10년만 더 일하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여러 인사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먼저 하 목사가 영국 유학 시절 큰 영향을 받은 데니스 레인 목사가 방한, “하용조 목사의 얼굴 그 자체가 바로 설교였고, 그는 진정한 목사였다”며 “그는 항상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그 삶의 특징이었다”고 전했다.

하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지성’ 이어령 박사는 “세례를 받고 난 후 저는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 외손자와 하 목사님, 그리고 딸까지 잃었고, 그때마다 세례를 받고 모든 생을 바친 것에 회의가 일었다”며 “많이 흔들렸지만 한 가지 해답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하고 아프고 슬프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들의 이 모임도 없었으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령 박사는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의 사랑과 생명까지 깨우쳐 주셨다”며 “천국에 가셔서 투석의 어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나셨으니 이를 정말 믿는다면 웃고 춤춰야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늘날 울고자 한다”

고 한 후 추모시 ‘오늘만 울게 하소서’를 낭독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목사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였고, 아무리 연약해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셨다”며 “전도하기 어렵다는 과학자와 연예인들에게 동시에 다가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을 깨닫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울먹였다.

유가족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 장남 하성석 씨는 “이틀 전 아버지의 1주기를 보내면서 슬픔 가운데 20년 전 이 교회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니 감사함이 자리잡았다”며 “그런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 언

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뵈 날을 소망하며 저희 유가족들은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성도들은 이재훈 목사의 인도로 ‘유가족들을 위해’, ‘은누리교회와 두란노서원, CGN TV 등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예배는 하용조 목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함께 부르던 ‘살아계신 주’를 다같이 부른 후 남창우 목사(장충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213.327.4710**



##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 ‘문둥이’ 아닌 ‘한센인’ 용어 사용해야

IDEA협회-(사)한빛복지협회, 기자간담회 갖고 촉구

한국 IDEA협회와 한센인들의 모임 (사)한빛복지협회는 6일 ‘한센인 용어순화’를 위한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계가 ‘문둥병과 나병’이라는 용어 대신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1957년 한센병의 주치약 DDS가 한국에 보급되기 전까지, 한센병 환자들은 ‘문둥이’란 이름으로 온갖 편견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치욕스런 삶을 살아야 했다. 이후 이 병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WHO와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한센병은 나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98년 일본정부는 국제IDEA협회와 함께 동경에서 ‘한센병 회복자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한센병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한센(Hansen)의 이름을 따서 한센씨균으로 개칭했으며, 이후 한센병으로 불리게 됐다. 한국정부는 1963년 한센인 강제수용법을 폐지하고 한센인 정착사업을 실시했으며, 일본과 함께 한

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한빛복지협회 이길봉 회장은 “한센인을 폄하하는 ‘문둥병자’란 용어 때문에 한센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특히 교계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목사들은 아직도 설교 중 문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교계 언론이 이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체는 현재 각 언론과 교단을 중심으로 한센병 용어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힘쓰고 있으며, 성경찬송개정위원회를 방문, 성경의 ‘문둥병’을 ‘한센병’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관철시켰다.

한편 지난 201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한국교회는 문둥병, 문둥이, 나병, 나환자 등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센 관련 인용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 후임 청빙에 박차

전 담임 송태근 목사를 삼일교회로 떠나보낸 서울 노랑진 강남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1차 후보자 18인을 선정했고 오는 9일 이를 5명으로 압축, 이달 말께 최종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남자원 장로)는 전임 송태근 목사가 사임의사를 밝힌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후임 청빙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달 18일까지 총 91명의 지원 및 추천자들의 접수를 끝내고 인선에 착수, 지난 달 28일 15명의 1차 후보자들을 선별했다.

청빙위는 오는 9일까지 최종후보를 5

명으로 압축하고, 설교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 최종후보 1인을 뽑을 계획이다. 이 최종후보자는 다음 달 2일 당회에 보고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6일 공동의회를 거쳐 강남교회 새 담임 목사가 된다.

청빙위는 “담임목사 청빙이 청빙위원들의 제한된 안목과 식견, 그리고 사람의 짧은 분별력이나 판단력만으로 결정될 사안인 결코 아님을 깊이 느끼고 있다”며 “청빙위원회나 당회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뽑아 주셔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효능 찬사 앵콜 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8월15일까지)

프로모션 B (8월15일까지)

프로모션 C (8월15일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오리지널 8병도 100불)

100불

100불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할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간을 다 돌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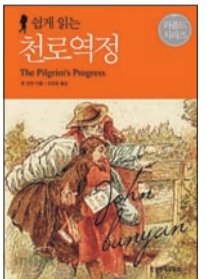
## 通

### 신간 소개

#### 쉽게 읽는 천로역정

존 번연 지음 | 생명의말씀사 | 352페이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생명의말씀사에서 리폼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1895년 한국 근대 첫 번역 소설로, 천로역정을 소개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본받겠다는 각오로 처음 선보이는 책이다. 원본에 충실하게, 명화를 보는듯한 컬러 일러스트, 쉬운 말로, 각장마다 해설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리폼드 시리즈를 통해 존 번연 뿐 아니라 존 칼빈, 리차드 벅스터,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통찰이 담긴 양서들이 발간될 예정이다.



####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지음 | 두란노 | 304페이지

카일 아이들먼(Kyle Idleman)은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어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행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당신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라!



#### 선생님은 나를 응원해!

정병오 지음 | 흥성사 | 256페이지

삶의 성장통을 겪는 십대들에게 눈에 보이는 뻔한 정답 대신 정직한 해답을 주는 선생님의 속 깊은 편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인의 인생이 편해지기 위해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바른 목표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인 청소년들에게는 바른 삶의 목표를 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온 크리스천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있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진지한 고민에 귀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한다.



#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 INTERVIEW

## 책을 사모하는 사모, 이상은 사모를 만나다

책은 그에게 있어 '끼니'다. 거를래야 거를 수 없는. 매일 꼭 한 권씩 게 눈 감추듯 먹어치운다. "애들 다 키우고 일선에서 물러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봐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요. 호호호."

유독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다. 타형가에 자리잡은 조이헬로교회 교회 이상은(사진·62) 사모를 말이다. 결혼 전 그는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터라 웬만한 작가·목사들이 쓴 신앙서적은 모조리 섭렵했다. 당시 7-8만원 하던 월급 타는 날이면 용돈을 제하고 나머지 책 사는 데 다 써버리기 일쑤였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꼭 읽으리라 생각하면서 원서를 사줬죠." 그때 쟁여놓은 원서는 결과적으로 남편 박광철 목사 차지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한두권씩 사모보다보니 어느덧 소장권수 2만권이 훌쩍 넘었다. 지금도 틈만 나면 근처 서점에 나가 살살이 훑어본다. 그러다 행여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본 '그 책'이 없을까 하면 당장

에 주문해서라도 꼭 본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3살 위인 남편과는 학생 시절,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오죽하면 신혼여행 갈 때도 책 보파리를 챙겨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책과 사랑에 빠졌다. "남편이 신학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에도 그저 공부로만 그치길 원했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과정이야 어찌됐던 그는 그 후 사모가 됐고,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 "종일 책만 보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늘 지근거리엔 책이 있었다. 그는 저서 <프랑스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에서 책 혹은 독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신앙서적: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라. 너의 인격까지 품어주게 해준다." >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마음과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심각한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서점: "자녀들과 함께 종종 서점에 들러라. 세상일에 뒤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

다.' >책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딱방아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거부하는 요즘 독자들에게 이런 단문이 통(通)했는지, 운이 좋은 탓인지, 이 책으로 그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한 문장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워낙에 완벽주의자인데다 꼼꼼한 성격인지라 마음에 들 때까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원래 글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는데... 자꾸 쓰다보니 개발이 되더라"며 겸손을 띤다. 책을 더 쓸 계획은 없다는 질문에 그는, "책은 흔적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며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다.

요즘은 미국 올 때 싸 들고 온 책 보따리를 풀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소설이 주는 묘미에 푹 빠져있다. 물론 그에게도 예수 믿고 한때 주야장천(晝夜長川) 성경 한우물만 파던 시절이 있었다. 책을 봐도 신앙서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어찌보면 편협한 신앙

의 모습이었죠. 세속적인 책을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40대에 들어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부터 관련 전문서적에 통달했다. "제가 원래 뭘 하나 해도 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물으니,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겠다. 너무 많아서 일게다. 그래도 한번 말해 보라 하니, 줄줄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공지영, 노회경, 신경숙, 박완서 등 유명 작가들의 책은 물론 기일해, 이재철, 김성일 등 신앙이 묻어있는 소박한 글들을 특히나 좋아한다. 이 가운데 1994년부터 꾸준히 수필을 펴고 있는 기일해 작가의 수필집은 아예 시리즈로 통해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말하자면 '기일해 홍보대사'인 셈이다. 정크푸드가 아닌, 자연 밥상 같은 작가만의 독특한 색채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일해 수필집,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걸 빼놓지 않는다. 그는 책을 보면 저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아, 이 책은 그 친구에게 딱인데...'



프랑스시 웨퍼의 아내 에디스 웨퍼 여사가 쓴 <라브리 이야기>는 그에게 사역의 롤 모델을 비추주는 거울이 됐다. 1955년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 자연 속에서 삶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향기처럼 전했던 웨퍼 박사의 부부처럼, 그는 남편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후배 선교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그간의 사역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아끼던 책들도 도서관을 만들어 이들 선교사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줄 계획이란다.

정한나 기자

프로 바이온의 바이오텍 이온수기는

# 물 맛이 깨끗합니다

**잘못된 이온수기물의 상식** **알카리 이온수기의 물맛이 멍멍하고, 찝찝하고 우물 물맛이라고요?**

아니에요! 필터의 차이가 물맛을 좌우합니다. 프로 바이온의 바이오텍 이온수기는 **퀄리티가 높은 필터링으로 물맛이 깨끗하고 통합니다.**

**BTM 501 T**

- 일시불 구입시 판매가 \$2,500 + tax (\$소비자가 2999 특별 할인 \$500)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시 적용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 무이자 할부 판매 24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3년간 전해조 청소 Free, 3년간 A/S Free, 이사 이전설치 1회 Free 입니다.

**BTM 501 T는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 심플한 디자인과 LCD 창이 최신 디스플레이
- 손잡이의 푸른색 무드등
- 이온수기 전체 high glossy 코팅처리
- 7장의 99.99% 백금 티타늄 전해조
- 대한민국 퍼스너 브랜드 상.
- FDA, KFDA 인증

**BTM 102G**

소비자가 (순도 99.99% 백금 전극판 5장) : \$2500 + tax  
 일시불 구입시 \$700 cash back - \$1799 + tax (필터 1 set +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3회 분납시 \$700 cash back - \$1799 + tax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렌트보다 더 싼 12개월 무이자 할부, 24개월 할부 ● 이 모든 행사는 Pro Bion에서만 진행됩니다.**

\*한국에는 수십개의 이온수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지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 이온수기는 28년 동안 한우물만 파며 100%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되고 미국, 유럽, 중국, 이온수기의 중추국인 일본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만의 특징점**

1. 유량에 관계없이 적정 pH 자동 맞춤 기능
2. 어린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 기능 음성안내
3. 모든 작동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신형 LCD액정 화면
4. 99.99% 백금 티타늄 전극판 7장을 사용한 업계 최고의 전해조 시스템
5. RSC 반도체 회로에 의한 자가 진단 시스템
6. 저수조가 따로 없어 위생적이고 주방에 어울리는 컴팩트한 디자인
7. 자동세정, 자동배수 및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

**문의전화 714.736.0802**  
8362 Artesia Blvd #C Buena Park, CA 90621

**H마트 리빙헬스**  
562.972.4548

**대리점모집 개인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  
[info@probininc.com](mailto:info@probininc.com)

### 섬김의 축복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교회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육한다. 서양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거의 없던 시기에 교회는 교육과 훈련의 중심이었으며 서양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중세의 대학들이 그랬고 현재 미국 최고의 학부로 인정받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대부분 명문 교육기관도 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던 미국의 교육기관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가 급속히 더 세속화 되어 왔다. 그래서 교회의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속화된 미국 사회를 개혁하는 길은 다시 한 번 교회가 직접 교육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흔히들 학교를 상아탑이라고 표현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내용을 훈련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일까? 모든 훈련이 다 그러하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느 곳에서든 섬김과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습관의 훈련이다.

지난주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다가 아주 유쾌한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다행히 이 집사님은 대출금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집사님의 설명대로라면 그것은 섬김의 축복이었다.

이 집사님이 대출금을 좀 조정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따지듯 큰소리를 치고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불평을 듣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도 무척 힘들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집사님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홍삼 사탕을 나누어 주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에 들 때 또 그렇게 홍삼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했다.

모두 다 자기 사정을 먼저 봐 달라고 불평하는 사이에, 작은 홍삼 사탕 하나라도 주며 위로하는 이 집사님을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집사님은 그곳에 갈 때마다 홍삼 사탕 하나의 사랑을 전했고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시원한 음료를 한 상자 사 들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던 어느 날, 저 밑에 있던 집사님의 파일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돼 아주 만족스러운 대출조정을 받으셨다고 하신다. 이 집사님은 가끔 구역예배로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아내를 도와 섬기는 모습이 언제나 시원스러운 분이었다. 타고난 모습이 싹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섬김의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훈련은 전혀 뜻 밖의 곳에서 축복을 가져왔다.

섬김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급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부지런히 섬김을 훈련하고 실천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은 분명하다. 모든 우리 삶의 구석 구석에서 섬김을 실천하여 축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시테크 · 재테크 · 인테크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귀라는 조언들은 이 세 가지 인생 테크놀로지가 담겨 있는 소중한 잠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크게 보면 사람에게서 시간도 나오고, 재물도 나오고,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된 배후에는 아론, 훌, 여호수아, 미리암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역명의 빛이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들 때문에 극도의 고난을 겪었지만, 반대로 사람들 때문에 극동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재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재력과 사람들이 다 중요한데, 이것들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관문은 항상 하나님과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는 인(人)테크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시테크)나 재산의 증식과 관리능력(재테크)보다 인간관계나 인맥관리를 더 중요시하는 인테크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성공과 도약의 관건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최첨단 전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와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65퍼센트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초정밀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피곤한 일터라 할지라도 정작 일보다는 사람에게 의해서 미래의 진로나 사회생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감당하기 더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금이다, 좋은 친구를 사

###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버린 사람



안인권 목사  
워싱턴DC 세소망교회

명동에 터를 잡는다. 커피가 유행을 타기 시작한다는 걸 재빨리 알아차리고 커피 배달 일에 뛰어들 것 겁 없이 시작한 한 평짜리 작은 커피 배달 가게는 그의 첫 사업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1981년 아내인 장진숙 씨와 함께 무일푼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셋이었다. 식당 점시뒀이, 청소, 주유소 아르바이트... 낯선 미국에서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저희가 이민 온 81년에는 미국에서 'Korea'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민 온 사람들은 언어, 문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었죠.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만 했죠." 그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해서 1만 달러가 모이자 이민 3년만에 6사람이 망해 나간 가게를 사게 되어 1984년 의류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포에버21이다.

"미국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자 지금의 저와 가정, 그리고 포에버21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던 중 실업률 문제가 절실하다는 걸 알았죠. 그 후부터 회사의 안정과 매출보다는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게 됐습니다." 유통업(Retail)은 단시간에 성공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는 노력과 재투자자를 해야 하고 결과 또한 바로 나타나지 않죠. 저희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바보스러운 정도로 한 우물만 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저희는 기독교를 믿으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겁니다."

2009년 포브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25명의 재미동포'라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장도원 회장은 첫 번째로 이름을 올

아메리칸 드림은 이뤄졌다. 무일푼으로 미국에 왔던 장도원 · 장진숙 부부는 30여 년 만에 36억 달러(약 4조1400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가운데서도 상위권인 88위다. 올해 처음 400대 부자에 진입한 18명 중 최고 순위다. 그들이 창업한 '포에버21'이 고속성장 중이고 올해 매출액이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미국 부자 순위를 흔들 인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7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로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엔 부인 장진숙 씨가 미국에서 6명 밖에 없는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 파워우먼 39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49위)보다 높은 순위다.

이들 부부가 만든 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은 패스트 패션계의 다크호스다.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 일본의 유니클로에 맞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미국의 이민자로 출생해 전 세계 500여 개 매장에 4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 제국의 수장 장도원 회장은 남다른 감각과 수완으로 짧은 기간에 포에버21을 굴지의 패션 브랜드로 키웠다. 그는 친구들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시 한국에서 가장 변화가였던 서울

렸다. 리스트에 올라간 대부분의 재미동포는 고학력 엘리트였다. 그는 성공 요인으로 '하나님의 힘'을 꼽는다. 그는 거듭난후 단기 선교에 다녀 오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돈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그후 시험이 왔다. 5%의 마진을 떼고 4천5백만불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계약 제안이 들어 왔다. 기도했더니 "네가 그 돈이 필요하냐 너무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듯해지면 내가 나를 찾겠니?"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 그가 씨인을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돈에 붙잡히는 것을 매우 조심했다. 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소득의 십분의 일로 산다.

아내와 두딸과 함께 가족경영을 하는 그는 "두 딸에게 성경적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잘못했을 땐 애들 엄마가 매를 들고, 방학 때는 꼭 두 달씩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 등지에 단기 선교를 보내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축복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자신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유명해진 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왔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옛날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해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향해 살았기에 그는 헛되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1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사랑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베델의 한 젊은 신혼 부인에게서 온 편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읽었습니다. 올해 초에 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던 중, 아기가 약 30분간 숨이 멈추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유난히 살색이 희고 잘생긴 이 어린 남자 아기는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 젊은 엄마에게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몇 번씩 최종 통보를 해왔지만, 엄마의 강한 사랑의 본능을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몇 주일을 더 버틴 끝에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두 달간 누린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젊은 부부가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 아이의 엄마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과 탕연트를 교회에 위해,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든 저희 부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중략) 손 목사님, 감사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제일 아끼는 편지지를 꺼내 몇 자 제 손으로 적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어주시며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평생 남아있고, 그 사랑을 평생 제 마음 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저희

어느 가정의 밝은 소식으로 활짝 웃었다가도 몇 시간이 안가 또 다른 가정이 겪는 고난의 소식이 들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경영하던 기업이 경쟁 업체의 비윤리적 공세 앞에 무참히 허물어지고 다 잃게 된 어느 한 베델성도의 고난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탄식이요 억울함이었습니

지금도 예배 시간에 고난을 당한 성도와 눈길이 마주 칠 때마다 강단에 선 저의 마음이 쓰라립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독할까’, 무슨 말로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때가 오면 휘장을 걷고 고난의 목적을 밝혀줄 것입니다. 숨을 멈추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육과 같이 다 잃어버리는 와중에 던져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 어느 때든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 신학적 오류와 이단(2)



신현국 목사  
에반겔리아대 총장

여하고, 생수 교리 및 부활운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새일파(새일중앙교회)는 교주 이회자의 책의 신적 권위를 강조한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엘리야복음선교원(한농북구회)의 교주 박영호는 3가지 성경이 있다며, 자신의 가르침을 제 3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의 절대권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3대 슬로건의 하나로 Sola Scriptura(Only Scripture, 오직 성경)를 주장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경계하셨다. 그러나 이단은 표면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이거나 성경의 표준에서 이탈할 뿐 아니라 성경 외의 Extra-Scriptura를 성경과 동등한 권위 혹은 상위의 권위에 올려놓는다. Dr. Hoekema가 ‘권위의 특수 성경적 원천(An Extra-Scriptura source of authority)’이라고 표현했듯, 이단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교주의 책을 들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주를 절대화, 신격화한다는 점이다. 정통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며 그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이단들은 교주의 주장이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다. 한국예수교전도관(전부교)은 교주 박태선을 ‘동방의 의인, 피의 증인, 하나님의 전권대사, 철장권세 잡은 자, 감람나무’ 등으로 신격화해더니, 결국 자신을 ‘천부님’이라고 선포하고 성경은 98%가 거짓이고 예수는 99%가 죄 덩어리라 선포하기까지 했다. 통일교 문선명은 자신의 결혼식을 ‘어린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렀으며 그 뒤 문씨 부부에게는 ‘참부모님’이란 호칭이 붙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Russell은 사도바울과 같은 서열에 위치하며, 성경의 위대한 두 해석자 중의 한사람으로 숭배된다.

물문교는 성경뿐 아니라 물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그들의 핵심교리로 여긴다. 그들은 “We believe the Bible to the word of God, as far it is translated correctly: We also believe the Mormon to the word of God”라고 고백한다.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Russell, Studies in the Scriptures, 1:348)이라고 기록하나 Russell은 그의 성경 연구 서문에서 “성경만 읽고 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책만 읽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고 주장하며, 사도신경을 사탄의 선물이라고 표현한다.(SS 7:53)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표리부동하다는 점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 갈 때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했듯, 이단은 겉과 속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주장을 변경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고후11:13-15)’으로 가칭해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들은 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내세우나 실제로 이들이 믿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안식교는 성경이 영감에 의해 문자적으로 기록됐다고 믿지 않는다.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의 여선지 Ellen G. White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의 책들을 “영적인 힘의 탐, 재림교도들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가르친다. 역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성약시대는 교주 문선명의 출생년인 192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로 구분하는 통일교는 신구약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서로 보고, 그들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완성기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타종교와 구별해 말할 때, ‘타력종교’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기독교는 오직 ‘타력’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 Only Grace)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름을 사칭하나 기독교의 교리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인간의 행위나 은혜와 사죄의 방편을 덧붙여 넣음으로써 은혜의 교리를 부정한다. 또 상당수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하며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완성된다고 가르친다.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나오나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 기독교대 한개혁신학회(동방교)는 교조 노광공이 지은 경화록에 신적 권위를 부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강조한다. “은혜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완성하거나 이룩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The Four Major Cults, Anthony A. Hoekema p.380) (계속)

### 성경을 삶의 매뉴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설명서는 산 제품에 대한 최적의 사용을 위한 각종 정보나 안내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샀지만 설명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에겐 자동차 앞좌석 시트 안에 넣어 두었던 설명서를 얼마 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을 타고 다녔던 차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알았다면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첨단 기능이 제 차에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자동차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했던 것입니다. 설명서를 읽으면서 “진작 읽어볼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활용하기 위해 삶의 설명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최적의 삶으로 세우기 위한 풍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보고(寶庫) 중의 보고입니다. 막연히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책입니다.

잘 읽어보면 편리한 기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기에 편리한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샀다 하더라도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삶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장비들을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T 기술의 급증 때문에 자동차에 첨단 장치들이 속속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한 장치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안에 고가의 컴퓨터기기를 장만해 놓고서도 사용법을 몰라 단순한 기능만 사용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의 설명서를

저는 요즘 성경이 인생의 설명서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통찰력을 성경을 통해서 넘치도록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책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성경의 중요성을 교우들에게 강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매뉴얼로 삼으십시오.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성경을 늘 손 안에 두십시오. 성경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시고 손에 익숙한 삶의 매뉴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최적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존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 자 동 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 SUGAR

health & life



설탕과의 전쟁 “No Sugar”  
과다 섭취가 문제... 대안은 없나?

# 단맛 내는 설탕, 몸에 좋은가 나쁜가?



### ‘설탕은 가라’ 설탕과의 전쟁

과자 및 탄산음료에 함유된 당량의 설탕이 총지 발생과 비만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설탕 사용량을 줄이려는 식음료 업계의 노력이 뜨겁다. 아예 ‘노 슈거’(No Sugar)를 선언하고 전 메뉴에 설탕을 집어넣지 않는 웰빙 레스토랑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을 정도다.

LA 한인타운에 최근 새로 등장한 레스토랑 ‘닥터 로빈(Dr. Robbin)’도 그 중 하나다. 뉴욕에서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른바 ‘건강한 식생활 이니셔티브’를 거머쥐고 대용량 가당음료에 대한 법적 철폐를 들고 나와 이슈가 되고 있다.

### 설탕의 발견, 그리고 역사

단맛을 내는 설탕. 수크로스, 즉 자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감미료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탕류로서 포도당, 맥아당과 같은 다른 단맛을 가지는 당류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설탕의 역사는 기원전 3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에 원정군을 파견했을 당시 사령관이었던 네아체스 장군이 “인도에서는 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갈대의 줄기에서 꿀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또 기원전 320년엔 인도에 주재한 일이 있었던 그리스인 메가스테네스가 설탕을 ‘돌꿀’이라고 소개했다. 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때 이미 고형물인 설탕

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문헌으로는 <이물지>라는 책에 기록된 것이 최초이며, 베트남에 수수설탕(Cane sugar)이 있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후한서>에도 인도에 돌꿀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설탕은 인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원료인 사탕수수는 기원전 2000년경 인도에서 이미 발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사탕무 재배가 시작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 설탕 소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설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일자 기사에는, “설탕 소비량으로 그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측정한다는 말은 뻥이다.”, “설탕을 소금처럼 음식의 필수 조미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카페인처럼 직접적인 독성은 없으나 만성적으로 설탕을 먹으면 독이 된다”, “설탕 대신 꿀을 쓰는 것이 몸에 좋다”고 나와 있다.

### 설탕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

요즘이야 어디서든 설탕을 할값에 쉽게 구할 수 있다. 허나, 40여년 전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를 써서 단맛을 냈다. 사탕수수는 뉴기니에서 최초로 재배했고, 인도에서 최

초로 가공돼, 아랍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다. 아랍인들이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유럽인들은 설탕을 경험하는 일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원 후 천년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사탕수수 설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지만, 아랍인들은 설탕 제조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어디든 코란과 함께 자신들의 생산물인 설탕과 설탕 생산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 기술을 전파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유럽인들도 설탕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650년 무렵엔 귀족들과 부자들이 설탕 소비자들이 됐고, 희소성 때문에 당시 설탕은 마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제 꼬마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단맛 내는 설탕. 과연 몸에 좋을까 나쁠까?

### ▷설탕은 어떤 식품인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단순당으로 영양가가 없는 식품이다. 단지 ‘텅 빈’칼로리를 제공할 뿐이다. 서양에서 설탕을 ‘empty calorie foods’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이래서다. 설탕은 혀와 뇌를 행복하게 하지만 치아 건강을 해치고 비만을 유발하는, 이른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두 얼굴 가운데 먼저 좋은 점부터.

기본 전환엔 설탕이 나름 효과가 있다. 설탕을 넣은 차 한 잔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공격적이거나 까칠한 성격이 다소 유순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0년 호주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총동역제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뇌에 공급한다”며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설탕을 넣은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다. 설탕이 첨가된 단맛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또 ‘행복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늘어나 일시적으로 행복감에 빠져 든다. ‘설탕중독’이란 용어가 생긴 것은 이래서다.

### ▷비만, 당뇨 등 질병의 주된 원인

지난 2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설탕이 건강에 위협적”이라며 “정부가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설탕 소비는 세계적으로 3배 증가했으며, 설탕이 세계 비만인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설탕은 당뇨병자의 적(敵)이기도 하다. 당분이 혈당에 안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생활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당뇨 환자라면 가당 음료수를 멀리 해야 한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은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과다 섭취 문제, 꿀·야채로 단맛 보충

삶이 우울하다고 단 것을 찾고 다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설탕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지만, 결국 과다 섭취가 문제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설탕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단맛을 내는 설탕 대신 꿀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 특히 아이들 먹거리엔 가공 설탕 대신 100% 자연산인 꿀을 이용할 수 있다.

꿀에는 아연, 구리, 칼슘 등 성분들이 많고 이미 벌이 한번 소화시켰기 때문에 장이 약한 아이들이 먹기에 무리가 없다. 요리에 쓰는 꿀은 향이 없고 물처럼 흐르는 저렴한 제품이 좋다.

양파, 양배추, 파프리카 등 단맛이 많이 나는 채소를 넣으면 꿀이나 설탕 없이도 적절한 단맛을 보충할 수 있다.

정하나 기자





자연이 나를 부를 때 신비로움의 극치를 간직한 그곳으로 떠나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그랜드캐년으로



L I F E I S T R A V E L

### 태고의 신비

### 지질학의 노천 박물관

### 원시자연의 아이콘

### 살아있는 지구의 화석

### 대자연의 장엄한 파노라마

# 그랜드캐년

'원시자연의 아이콘'. 아리조나의 상징인 그랜드캐년에 붙여진 이름이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0대 자연경관 중 단연 첫째로 손꼽히는 곳이다. 누구나 살다보면 이런 순간이 한번쯤 있다. "예라, 모르겠다. 다 핑개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세파에 찌들려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 올 때, 삶의 알량함을 일순간에 흘뜨려버리는 광풍과 함께 그랜드캐년 절벽의 끝자락에서 대자연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 거의 영겁에 가까운 세월동안 침식된 협곡. 산자락에서 산마루까지 황색, 연홍색, 검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각양각색 퇴적층과 바위산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억만년 동안 험없이 협곡을 깎아낸 콜로라도강은 황량한 무채색 협곡 사이를 노도(怒濤)처럼 흘러가는 한 줄기 연청색 생명선, 태고의 강은 매서우리만치 강렬한 힘으로 아리조나 사막 팔백리를 적시고 캘리포니아만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랜드캐년. 지금은 문명의 혜택을 입은 지구인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지만, 이 땅은 원래 인디언 부족들의 땅이다. 나바호(Navajo)를 비롯 호피(Hopi), 하바수파이(Havasupai), 후아라파이(Hualapai)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화 《디어 헌터》의 감독 마이클 치미노가 지난 96년에 만든 영화 《선체이서(sunchaser)》에는 바로 그 나바호족의 피가 흐르는 인디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호피족의 전설도 유명하다. "땅이 형성되기 전에 신령한 혼들이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곧 토크펠라(Tokpela)라고 불리는 세계에 살았다. 그러나 이 세계에 사악함이 팽만해진 후, 첫 번째 세계는 불(fire)에 의해 멸망하고, 두 번째 세계는 얼음(ice)에 의해 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는 혼돈(chaos)으로 가득찼다. 마침내 네 번째 세계에 이르러서야 혼돈에서 빠져 나와 안정된 세계로 나아갔다."(Wayne Glover, Kokopellis : Acient Myth, Modern Icon, Bellemont, Arizona : Canyonlands Publishing, 1995, p.54)

붉은 기운으로 찬연한 그랜드캐년에서 밤을 지새워 본 이라면 낮의 뜨거움은 기억의 세포에서조차 지워질 정도로 밤새 혹독한 추위가 물려든다는 사실을 알리라. 하지만 이토록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제껏 그 어느 하늘에서도 본적 없던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잔치가 기억에 남는다.

이토록 곱디고운 대자연의 신비를 마주하고 있자니 문득 스웨덴 출신의 목사 칼 보베르그가 지은 찬송가 곡조가 뇌리에 스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캐년 곳곳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옛날 인디언들은 날

마다 그 별들을 벗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혹 누가 야는가?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자리에 들었는지.

### 노스림, 7월부터 10월까지 운치 좋아 신비한 느낌, 울창한 초장 장관

그랜드캐년은 북쪽 가장자리 노스림(north rim)과 남쪽 사우스림(south rim)으로 나뉜다. 개중 노스림은 그나마 사람의 때가 덜 탄 곳이라 할 수 있겠다. 평균 5000~9000피트의 그랜드캐년 계곡 정상에 비해 1500피트 더 높은 게 노스림이다. 높은 만큼 전망이 그야말로 광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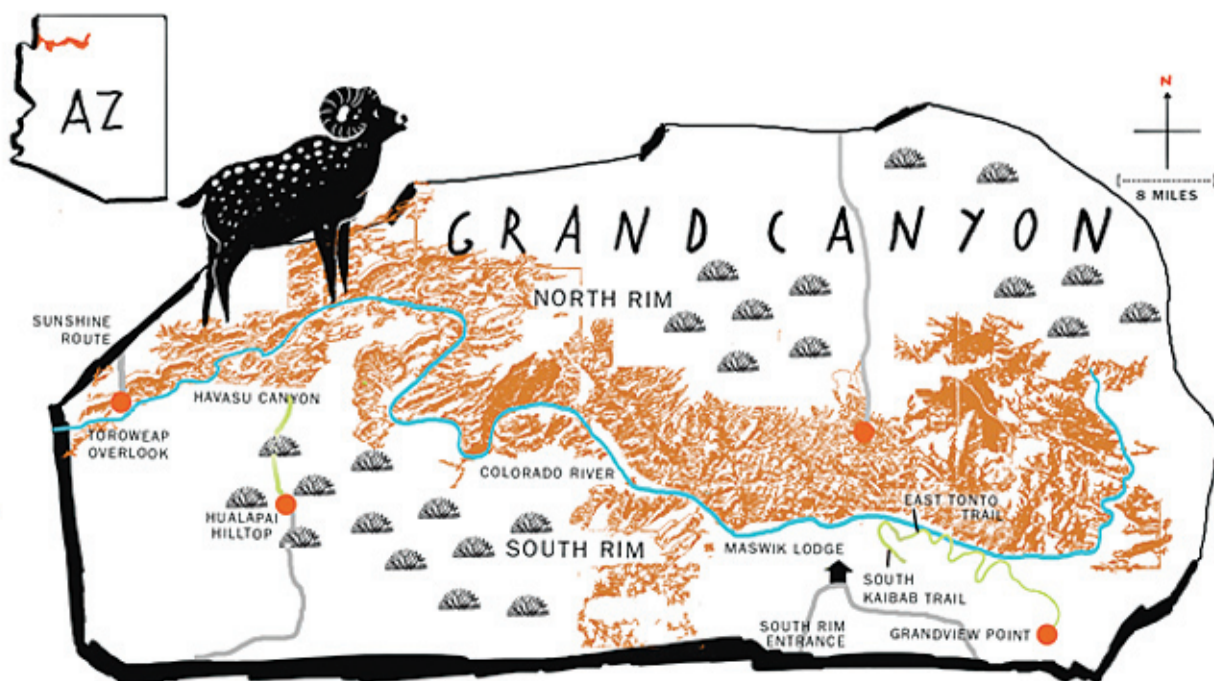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통제구역이 된다. 그래서일까. 보통 이곳을 찾는 여행객 8명 중 1명은 사우스림만 보고 간다. 노스림은 7월부터 10월까지가 운치도 좋아 여행하기 딱이다. 만약 노스림을 차로 운전해 간다면, 도중에 사슴과 야생 칠면조, 코요테를 만날 수도 있다. 산 사자도 있으니 조심할 것.

LA에서 가려면 킹맨(Kingman)을 경유해서 가야 한다. 대략 387마일, 약 6시간이 소요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후버댐을 경유해 120마일, 약 2시간 30분 걸린다.

### 아주관광, 노동절 연휴 맞아 그랜드캐년 노스림 신상품 선보여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아주관광(박병식 사장)은 오는 9월 노동절 연휴를 맞아 2박 3일 코스인 '노스림 둘러보기' 신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나바호 인디언 성지인 모뉴먼트 벨리, 글랜드캐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레이크 파웰과 엔테로포 크루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라스베이거스와 네바다 주립공원인 레드락 캐년 등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문의 (213) 388-4000

정한나 기자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인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이민국 및 법원 서류 일체**  
(최고 저렴한 가격)

- ▶ 종교비자 (R-1 & I-360)전문
- ▶ 가족 및 결혼 영주권, 제반 서류 일체
- ▶ 비영리단체 (교회,선교단체)

한미 기독교 봉사회 Tel. (213) 305-2344  
1300 W.Olympic Blvd., #202, LA, CA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Q.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려지지 않던/ 불임증/ 난치병

당뇨/파킨슨/호흡기/알려지지 않던/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먹고 마르기도 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 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발효,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2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울림픽과 놀랜드 신천은영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머슴이도 식물 먹지 않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지방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치가 줄어들어 소식생활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같은 때까지 치료)

양방/전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기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됩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iTalkBB 올림픽 기념 응원 이벤트

# “최고의 통화품질, 저렴한 플랜으로 서비스”

아이토크비비 한인 총괄사업부 다이앤 김 상무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이토크비비(iTalkBB) 한인 총괄 사업부의 다이앤 김 상무는 미주 진출 4주년을 맞은 아이토크비비가 고객과 한인 커뮤니티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토크비비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 총 28개국에 기존 전화선 대신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 전문회사이며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최고의 통화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다이앤 김 상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30일 환불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토크비비만의 저렴한 플랜을 이용하면 기존 유선전화 대비 가계 통신비를 최고 6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토크비비는 한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커뮤니티를 돕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한편 아이토크비비는 한인 고객들을 위한 365일 한국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한국어 상담원이 가입 및 각종 고객 지원 사항에 대해 도와주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iTalkBB.com)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2002년에 도미한 김 상무는 조지타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2008년에 아이토크비비에 입사했다. 김 상무는 입사 당시 자신이 첫 한인 직원이었지만 현재는 한인 직



다이앤 김 상무

원이 60여명에 달할 만큼 회사가 한 인사회에 대한 마케팅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전화: 800-872-2902

한주연 기자

## 한국 금메달 딸 때마다 1달러씩 크레딧

미주 한인사회 대표 인터넷 전화 ‘아이토크비비’가 올림픽 기념 응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이토크비비는 8월 15일(수)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딸 때마다 1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아이토크비비 측은 “한국 대표팀이 15개의 금메달을 따면 각 고객에게 15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이토크비비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총 28개국에 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 전문회사로 미국 로컬 장거리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8개국에 무제한 전화를 걸 수 있는 ‘글로벌 플랜’과 한국 휴대폰으로까지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글로벌 플러스 플랜’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올림픽 응원 이벤트와 동시에 15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모든 플랜을 첫 3개월간 9.99달러에 제

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도 제공한다.

한편 아이토크비비는 외출 때에도 휴대폰을 통해 매달 500분까지 국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토크 글로벌’과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시내 요금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전화번호를 하나 더 제공하는 ‘마이코리아 넘버’ 등 무료 부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문의: 800-872-2902

한주연 기자

## 세계선교태권도협회 증가주지역 대회 성료

선수 205명 참가, 학부모 600여 명 참관



심판위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왼쪽 줄 앞에서 뒤로) 김창일 집행위원장, 정중호 협회장, 산 리 심판위원장

세계선교태권도협회(WMTA, 회장 정중호) 프레즈노 지관(관장 김창일 사범)이 주최한 2012 Central Valley Jr. TKD Championship 대회가 지난 28일 토요일 하루동안 Fresno Pacific Univ. 체육관에서 증가주 지역의 10개 도장에서 205명의 선수가 등록하고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WMTA 정중호 협회장의 축사와 김창일 집행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프레즈노 도장 태권도·합기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및 호신술 시범은 600여명 관중의 뜨거운 환호를 받기에 충분했다.

50여명의 심판 및 진행,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힘입어 질서있는 경기운영을 하였고, 열띤 점진 끝에 품새와 겨루기의 종합성적에서 입상한 도장은 다음

과 같다. 우승은 Tigers Taekwondo(사범 Alex Solorio, Wasco 시 소재), 준우승은 Han's Taekwondo(사범 Francis Esposo, Bakersfield 시 소재), 3위는 Break the Barriers Taekwondo(사범 Mein Vue, Fresno 시 소재)이다.

세계선교태권도협회(World Mission Taekwondo Ass'n, WMTA)는 1984년 10월 1일에 엘에이에서 정중호 사범(국기원 9단)이 “충효태권도” 개관과 동시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태권도 보급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매년 어려운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여러 선교기관에 구제헌금을 하고 있다. 지난 28년간 100여명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주연 기자

## 선교 위한 건축 기술 배우세요

베벨건축학교 1기 핸디맨과정 수료식 거행



수료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베벨건축학교(대표 정요한 목사)가 5일 미주베벨교회에서 제1기 핸디맨 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지난 8주 동안 미국 건축물구조 및 건축도면 보는 방법, 플러밍 응급조치와 수리방법 문짝수리와 교체, 설치방법, 전기시설설치 및 수리방법, 공기선별 및 실내 벽수리 등 가정집에서 응급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배기문 교수가 강의했다.

이번 수료생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선교사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요한 목사는 “적은 교회지만 한인커뮤니

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면서 “특히 무료로 강의해 주신 배기문 교수께 감사하다”고 했다. 배 교수는 “내게 주신 달란트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에 선교사와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학기에 최명웅 집사 외 32명의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었다. 주최 측은 다음 달에 핸디맨 라이선스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213-422-9191

토마스 맹 기자

## 세계의료선교사, 2기생 수료식 열려

2기생 중 베트남, 칠레 선교사 나와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이 지난 6일 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 2기 세계의료선교사 수료식이 6일 오후 7시 세계의료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오직 손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선교사를 육성해 수료가 끝난 선

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은 이날 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앞으로 세계선교에 힘을 더할 것을 다짐했다.

박승부 대표는 “열심으로 수업에 임한 수료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기 학생 중에서 베트남과 칠레 선교사가 배출돼 상당히 고무적이다. 7일부터 LA와 OC에서 16명의 3기 학생들이 20주 동안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에서는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전문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해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수기치료는 각종 디스크는 물론 성인병, 당뇨,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편두통 및 대부분의 병이 치료가 가능하다. 척추교정, 골반교정도 가능하다.

문의: 213-381-7273 토마스 맹 기자



# 가스펠하우스

## Gospel House

### Cafe & Music

serving lunch & dinner

# 그랜드 오픈

# 323.426.9254

425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베벨리와 놀만디, 구 Pizza Hut 건물)







# SUPER STORE

## 감사합니다.

미국 전체 에쿠스 판매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1위**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 8월 특별 세일

돈 한푼 없이 첫달지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그냥 드립니다.  
 등록 가져 가세요.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 2012 NEW EQUUS

MSRP \$59,650 (STK:04562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 2012 NEW GENESIS 3.8L

MSRP \$35,260 (STK:19321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 2013 NEW SONATA GLS

MSRP \$22,010 (STK:51173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 8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 행사기간 2012년 8월1일~31일 )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8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